

고덕 아파트 측, 택배기사 주거침입 고발...“갑질 끝판”

아파트 측, 주거침입죄 혐의로 13일 고발장 제출 “아파트 측 처벌 원한다는 신고...절차대로 조사” 택배노조, 오후 규탄 기자회견...“참으로 너무해” “광고 얼마나 붙어있나...전단지로 고발이라니”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출입 금지를 둘러싸고 택배기사들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간 갈등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파트 측이 택배기사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측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아파트 측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했다. 고발인은 아파트 측 보안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택배기사 2명이 집 앞에 인쇄물을 붙인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한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택배기사들은 노동 현실을 입주 주민에게 알리는 호소문을 작성해 집집마다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택배기사 2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측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절차대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택배노조 측은 이날 오후 1시 강동경찰서 앞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경찰을 향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노조 측은 “참으로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라며 “택배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후퇴되는 현실을 견뎌야만 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린 것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경찰 소환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노

스러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은 “이번 고발은 보편적·사회적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말 갑질의 끝판을 보여주는 의미로 규정하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전단지 붙이고 있고, 그 전단지를 붙인 모든 분들이 주거침입이라는 어마어마한 범법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이제 택배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을 당한 택배기사도 마이클을 잡았다. 정장만 택배노조 조직국장은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저희의 호소를 들어줬으면 하는 절절한 마음에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유인물 한 장 건네는 것이었다”며 “주민분들 나올 때 맞춰서 아파트에 들어가 옥상부터 집집마다 하나씩 낚으며 내려왔다”고 떠올렸다. 이어 “저희들은 다른 것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화하고 싶다는 유인물 한 장을 건네고 싶었던 것뿐인데 어떻게 주거침입이 되고, 주거침입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안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아파트 살면 알겠지만 우편함과 집 앞에 얼마나 많은 상업 광고들이 붙어있나”라며 “심지어는 대출하겠다는 광고도 엄청 붙여져 있다”고 했다. 이어 “상업 광고보다 훨씬 절박하고 공익적인 전단지 하나 붙였다고 고발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경찰을 향해 “(피고발인을) 소환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경찰) 직권으로 조사 가기도 없으니 무혐의 처리하면 될 것을 택배기사들까지 신속하게 소환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되물었다. 택배노조는 다음 달 1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투쟁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총 5000세대 규모로 알려진 해당 아파트는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진입을 막았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가 2.3m라 진입하지 못하는 택배차량이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는 2.5~2.7m다. 이때문에 택배기사들은 단지 지상도로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지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배달차량 지상 진입을 전면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 시위를 하고 있다.

하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사비로 저택 차량으로 바뀌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택배노조는 이같은 행동을 ‘갑질’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조치와 요구사항이 결정을 결정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것이다.

아파트 측에서는 1년 전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 금지를 알리며 충분한 계도 기간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지난 1일과 14일 이 아파트 후문 입구에 물품 1000여개가 쌓이는 ‘택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민정기자



코로나19 여파...명동 상가 공실률 38.4%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1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8.4%로 조사됐다고 밝힌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교차로에 차 세워두고 ‘쿨쿨’ 30대 관제센터에 음주운전 달미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동승자가 지 신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7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일대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세운 채 잠든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승자 1명까지 태운 채 음주운전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 투기 혐의’ 기성용父 경찰 조사일정 연기

기성용 전 광주FC 단장 “개인 사정 이유로 출석 못하겠다”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무단 형질 변경 의혹, 추후 조사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안팎 농지를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FC서울 주장 기성용(32)씨의 부친 기성용(62) 전 광주FC 단장이 경찰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기 전 단장이 출석키로 했다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소환 조사 일정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기 전 단장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오후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조사 일정이 언론에 알려지자 개인 사정을 들며 다시 연기를 요청

했다. 기 전 단장과 기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 수십여원대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마뜩공원 조성사업 공원 부지 안팎 논(답)과 밭(전) 여러 필지(1만㎡ 이상)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에 “갖을 재배할 예정”이라고 신고했다. 이들은 매입한 땅을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한 혐의도 받는다. 기씨는 자신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부지에 포함된 땅(전체 매입 부지의 36%가량)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씨가 농지 매입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었던 점, 농지 취득을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투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과 심사 과정이 전반적으로 허술했다고 보고, 광주 서구청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 전 단장과 조율을 거쳐 조만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오유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